내일부터 식당·카페도 신보 특례보증 지원 가능

전북중기청-전북신용보증재단,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코로나19 인한 거리두기 격상에 어려운 소상공 자금난 해소 기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터 주자는 취지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에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따라서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와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RPA 운영관리실 내부. 〈사진=전북은행 제공〉

'RPA기술' 영업점 업무에도 적용

전북은행, 직원 업무 경감·대고객 서비스 향상 위해 이달부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직원들의 업무 경감과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RPA업무 고도화를 확대 시행한다.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수행하는 PC기반의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대신 자동 수행하는 기술로 전북은행은 12월부터 본부 외에 영업점 일부 업무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직원들이 단순·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영업점 직원 업무량 감소를 목적으로 고객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문서 시스템(PPR, 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기존 종이 서류의 90% 이상을 디지털화 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본부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1차 RPA를 적용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은행권 최초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인지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 적용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간 3만6,000시간(연인원 18.62명)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적용 업무로는 기존 영업점 직원이 발급하던 증명서와 확인서 및 각종 여·수신 거래기록 등을 RPA를 통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음성ARS 및 보이는ARS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RPA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상담사의 업무량 경감 및 콜센터 이용 시 고객의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ARS를 통해 직접 각종 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중기단체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신중한 입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으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와 관련 중앙회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과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병원간 만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나온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의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도,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하는 등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1999년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 등으로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자기부담률 인상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은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가져가면서도 보험료 수준은 내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내일 오픈 예정

'빠른 출퇴근 가능' 직주근접 환경 구축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오는11일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주택전시관 개관과 함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사전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전라북도 완주군 삼봉지구 B-3블럭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84㎡ 총 6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선호도 높은 84㎡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전북 완주군의 첫 번째 공공택지지구인 삼봉지구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다. 체계적인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고, 전주 에코시티와도 인접해 있어 두 지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가까이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전북 대표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단지 도보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근린공원과 문화체육시설 역시 조성을 앞두고 있어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투시도.

전주 에코시티와도 인접 전주-완주 인프라 누리는 더블생활권 입지도 갖춰

대부분 남향위주로 배치해 통풍 효과 극대화시켜

산업단지 클러스터·전주 에코시티 가까이… 탄탄한 더블 생활인프라 및 각종 혁신설계 '눈길'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가 들어서는 완주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완주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봉지구는 주거와 상업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기관이 결합한 미니신도시로 조성이 한창이다.

체계적인 생활인프라도 주목할 만하다.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삼봉지구는 6,0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보건소·소방서·파출소·하나로 마트·문화체육시설 등 관공서와 쇼핑시설, 문화시설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맞붙어 있고, 삼봉지구 내 축구장 약 10개 면적인 약 7만3,000㎡에 편백나무 숲이 들어설 예정으로 깨끗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에코라이프가 예상된다.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 우선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주변으로 과학로와 테크노밸리로가 구축돼 있어 삼봉지구와 완주 산업단지 클러스터, 전주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여기에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방도 799호선 등 주요 교통망도 품고 있어 익산시와 군산시 등 전북 지역 주요 도시부터 서울, 대전 지역으로의 광역 이동도 용이하다.

안전한 통학환경도 돋보인다. 삼봉지구 내에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계획되어 있고,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인근에 교육시설이 모두 밀집돼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통학 가능해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블생활권 입지도 돋보인다. 삼봉지구와 접한 과학로를 통해 입주민들은 전주 에코시티와 전주 도심을 차량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입지 장점으로 이마트 에코시티점(예정), 롯데마트 송천점, 메가박스 송천점,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전북대학교 병원, KTX 전주역 등 두터운 생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효과도 기대된다. 단지는 북쪽으로 현대자동차, LS엠트론, KCC, 한솔케미칼 등이 입주한 완주일반산업단지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전북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으로 배후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대부분의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 효과를 극대화한 구조를 선보인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공급되며, 4Bay 위주 설계를 통해 탁 트인 개방감과 높은 공간 활용도를 제공한다. 어린이놀이터와 건강마당, 작은도서관 등 중흥S-클래스만의 고품격 커뮤니티도 조성될 계획으로, 입주민들은 편리하고 풍성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삼봉지구 내에 먼저 분양했던 우미린의 경우 818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접수가 3,438건이 몰리며 중흥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견본주택은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322-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국산 감귤 '윈터프린스' 겨울 과일시장에 '도전장'

오늘 시장에 '첫 선'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국산 감귤 품종 '윈터프린스'가 오늘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시험 보급한 농가 3곳에서 생산한 '윈터프린스' 4톤가량이 제주감귤농협의 선별 과정을 거쳐 대형 상점(이마트 30여 지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농진청이 2016년 개발한 윈터프린스는 일찍 성숙하는 온주밀감과 늦게 성숙하는 만감류의 특성을 모두 지닌 새로운 품종이다. 온주밀감처럼 과즙이 풍부하고 과육이 부드러우면서도 당도가 12.5~13.5브릭스로 비슷한 시기 유통되는 만감류 '황금향'보다 높고, 산 함량도 1.0~1.2%로 신맛이 적당하다. 또한, 씨가 없고 껍질이 잘 벗겨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겨울 과일 시장을 주도할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배 측면에서 보면 가시가 없어 관리가 쉽고, 생육이 좋아 다른 감귤류보다 1년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욱 감귤연구소장은 "윈터프린스는 12월 출하되는 만감류 중 맛과 소비 편이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며 "윈터프린스의 시장 안착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의 본보기를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 감귤연구소는 올해 5월, 대학·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산업체·감귤농협 등과 함께 출범시킨 감귤연구단(단장 현재욱)을 중심으로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유통망 확장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감귤의 국산 품종 재배 면적은 2.8%로 다른 과수보다 낮은 편이지만, 최근 '윈터프린스'를 비롯해 '하례조생', '미니향' 보급이 늘며 해마다 새로 심는 국산 품종 비율은 지난해 8.6%에서 올해 13%로 늘었다. 감귤연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2020년 임금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8일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공민규)과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사 양측은 지난 8월 19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등 국민 고통을 감안,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 타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단체교섭을 시작했고, 생산적·효율적 교섭으로 교섭 일수를 전년 대비 86일(43%)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분규를 유지했다.

체결식에서 김용진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속한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한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구성원의 노동조건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도 함께하는 기관 운영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민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어려움에 눈감지 않는 따뜻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